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50> 형과 아우가 뒤바뀌니

(지난호에서 계속)운암은 형을 데리고 약산 사숙에게 가서 전후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속가의 형을 백장 선사 보냈다고 하니 약산 선사는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행자생활을 마무리해 줄 것이다.

그 뒤 운암은 형을 데리고 서울로 가계를 받도록 하였다. 친히 형을 데리고 서울로 갔다. 무사히 수계식을 마치고 다시 백장산으로 함께 돌아오는 여정이 남아있었다. 절집의 '왕초보'인 형을 위해서 동생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형과 아우가 바뀐 상태이기도 하였다. 수계식을 했으니 법명을 '도오'라고 받았다. 이제 정식으로 동생인 운암인 사형이 되고 형인 도오가 사제가 되었다.

한다.

사실 형만한 아우가 없다. 출가가 늦었지만 소견머리야 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으로서 동생에게 들은 대담에 뭔가 미진함을 느꼈을 것 같다. 그리고 동생의 대담 역시 뭔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형식에 국집하면 말야 맞아 맞지만 건조해서 듣는 사람은 감동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보탐관(報探官)이란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한 마디 쏘아붙였다.

"풀밭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누군가가 꼭 살피고 있습니다."

"뒤편이요? 아직 이마에 벼슬이 시절의 것 쓴 자국이 그대로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요."



한마디로 속물이 털 빠진 말이란 뜻이다.

"사형은 그런 말 마시오. 불법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럼 사제(도오)의 견해는 어떠시오?"

### 사제가 된 형 도오선사가 예 갖추고 법 청했으나 법랍만 믿고 미진하게 답한 운암 뒤늦게 깨달아

했소. 오늘 다행히 기회가 있어 사형(동생)에게 물졌는데 괜찮겠소?"

정중하게 동생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무슨 일이지?"

운암은 정색을 하고 물어오는 형 도오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긴장하면서 법랍이 주는 위엄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되풀이 하는 물음은 의외였다.

"이 몸이 겁집을 벗어버리면 뒤에 어디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가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제 흑어 서로 인연이 다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눈물이 핑 도는' 물음인 동시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소식'을 묻는 법답이 어우러진 이중적인 질문이었다.

동생은 총림에서 장래의 큰스님으로서 근엄하게 법대로 한마디 하였다.

"불생불멸하는 곳에서 만나리다."

인정은 무시하고 도심(道心)으로만 대답

"불생불멸하는 곳도 아니요, 만나기를 구할 것도 아니외다."

듣고 보니 형의 말이 맞았다. 법랍만 믿고 짬뽕경력으로만 지나치게 승속을 나누고 법집에 치우쳐져 있는 자기를 일깨워주는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이 몸이 겁집을 벗어버리면 뒤에 어디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불생불멸하는 곳에서 만나리다"라는 묵은 승려의 답변보다는 "불생불멸하는 곳도 아니요, 만나기를 구할 것도 아니외다"라는 새 출가수행자의 말이 훨씬 더 근본적 살림살이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 법은 승속도 없고 노소도 없다고 했던 것이다. 법랍 높은 운암이 이제 갖게 받은 도오의 손을 잡으면서 형제가 아니라 도반으로서 이렇게 마무리 말을 짓고 있다.

"안목이 분명하군요. 당신(속가 형)의 안목이 그리도 뛰어나니, 같이 산으로 들어가거든 서로 이끌어 제도하십시오!" (끝)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장)

# 거짓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 조사 어록으로 자기공부 점검하기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공부 점검은 선지식에 받는 것이 원칙이리는데, 찾아갈 여유는 없고...' '덕 사는' 문제에 얽매어야 하는 재가불자에게 이 같은 고민은 연신 머릿속을 스물거리게 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조사어록에 실려 있는 기준에 따른 '자기 공부 점검법'이 그 해답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결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자기 공부를 냉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수행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님들의 어록에 따라 자기 공부의 옳고 그름과 깊고 얕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 공부 점검법'. '화해선 수행을 체계화한 대혜의 <서장>, 니옹의 <공부심절록>, 영명의 <중경록> 등을 통해 스스로 하는 공부점검 방법을 살펴봤다.

##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있는가 화두에 간절한 의심 물 흐르듯 이어지는가

### # 철저하게 스스로 묻고 답하라

<서장> <공부심절록> <중경록> 등의 조사어록에서 내놓은 자기 공부 점검의 핵심은 '자문자답(自問自答)'. 자신의 수행현실을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사의 공부 점검법을 거울 보듯 하라는 의미다. 특히 의심이 지어 가는지, 경계에 그달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날날이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럼, 말과 사유 그리고 경계를 초월해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 또 공부가 잘 이어 가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 등을 식별할 기준이 있는 것일까?

<서장> 등의 조사어록에서는 결국 스스로의 체현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자기점검 기준' 제시하는 <중경록>

중국 영명(永明·904-975) 선사는 <중경록(宗鏡錄)>에서 "집착에 사로잡혀 '깨달음'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스스로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배움의 길을 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가지 물음으로 기강을 삼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명 선사는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있어, 한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일상에서 웃고 입과 밥 먹을 때, 일을 맡아 처리할 때에도 일일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가' 등의 자기점검 기준도 제시한다.

동사십 수행을 지도하며 '마음관리법'을 강조하는 오타 스님도 "재가불자들은 습관적으로 일상사에 반응하며 살지만, 그 습관을 뛰어넘으면 역경계든 순경계든 '이 순간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하고 자문하라"며 자기공부 점검법을 제안한다.

### # 일상의 언어 <서장>

대혜(大慧·1089-1163)선사의 <서장> 공부 점검법은 재가불자들이 편비의 지뢰에서 빠지기 쉬운 점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상적인 언어로 지침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인 자기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20년 넘게 화두참구를 해온 이상호씨(44·한강홍수통제소)는 <서장>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가'란 점검법이 일상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정표가 된다고 한다. 특히 이씨는 "자기 공부 점검이 마음 안팎으로 일어나는 온갖 경계와 상황들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 <서장>의 점검법

- ① 유훘한 한자로써 때에 온갖 마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가
- ②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
- ③ 공작이거나 고요할 때에 헤아려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 ④ 공작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일치하는가
- ⑤ 이(理)와 사(事)가 회통 되는가
- ⑥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가

### <공부심절록>의 점검법

- ① 어떻게 하면 모양과 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 ② 이미 소리 등에서 벗어났으면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 ③ 이미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 공부가 외은 때는 어떤가
- ④ 공부가 되었으면 나이가 자취를 없애야 한다. 자취를 없애면 때는 어떠한가
- ⑤ 자취가 없어지면 의식이 닿지 않고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경계인가
- ⑥ 공부가 지극해지면 동정(動靜)이 틀어지고 차나 깨나 한결같아진다. 마치 개가 기쁨이 끊는 술을 보고 할수록 해도 할 수 없고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나니,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⑦ 갑자기 백이십 근 되는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단박이고 단박 같나니, 그때는 어떤 것이 그의 자성인가
- ⑧ 이미 자성을 깨웠으면 자성의 본래 작용은 인연을 따라 맞게 온다. 인연을 따라 맞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본래의 작용에 맞게 쓰이는 것인가
- ⑨ 이미 자성의 작용을 알았으면 생각을 벗어나야 하는데, 인망이 떨어질 때(죽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 ⑩ 이미 생각을 벗어났으면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 새대는 각각 줄지어 어디를 향해 가는가

### <중경록>에서의 점검법

- ① 경성에 미쳐 대낮에 울음을 보듯,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 ②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하는 등 모든 경우에 밝고 뛰어나고 되는 승용하는가
- ③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말을 모두 살펴도 의심스런 곳이 없는가
- ④ 온갖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따진 뒤, 능히 사변을 갖추 모든 의문을 풀어야 할 수 있는가
- ⑤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 있어, 한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 ⑥ 일체의 순경계와 역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알아차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가
- ⑦ 본체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 생사의 무리에 어지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 ⑧ 웃고 입과 밥 먹을 때, 일을 맡아 처리할 때에도 일일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가
- ⑨ 부처와 중생이 있다. 청진과 비방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 ⑩ 어떤 성인의 말에도 의문이 없을 수 있는가

지 않게 해,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 # 요점 꼭 짚어주는 <공부심절록>

니옹(懶翁·1320-1376) 선사가 공부점검을 10가지로 나눠 밝힌 <공부심절록(工夫十箇目)>은 재가불자들의 자기 수행점검에 지표가 된다. 수행 단계를 순차적으로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부심절록>은 단계별로 자신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어떻게 하면 모양과 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 이후 벗어났다고 확신하면, 곧장 공부를 시작할 것을 종용하면서 '어떻게 그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라고 되묻게 한다. 철저하게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10년 넘게 '일일수행점검법'을 작성하고 있는 김의식씨(57·국토연구원 연구원)는 "공부심절록은 일상생활에서 닦쳐오는 경계의 문제, 병통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화두를 갖고 면밀하게 드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자상하

### #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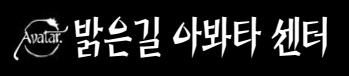
태고 선사는 어록에서 '깨달음의 소식이 있게 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살림살이를 다 털어내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열이면 열 모두 마구이 될 것이니 진심으로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공부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도 '집이든 직장이든 혼자서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화두를 타파하기 전에 어떤 알음알이와 경계가 일어나도 '모든 것은 아니다'고 부정하면서 다 떨쳐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직 화두를 반성처럼 움직이지 않게 붙잡겠다는 자기 다짐이 울곧게 서면, 화두에 간절한 의심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지 제대로 자기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수선은 본래는 언제든 무료로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앞장서서 달려오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랑구 병정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ta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클리닉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 소형자석  
1. 크기: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30개  
3. 특징: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대형자석  
1. 크기: 지름 10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30개  
3. 특징: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방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혈압,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또한 우울증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 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님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대학과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라는 박사기 루미노스의 광원으로 나타나는 극상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당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적혈당, 지질, 저혈당은 통증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가량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인제대지 부암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세요!**  
성심성의껏 자세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외)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 E-Mail : jibub3110@hanmail.net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기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교 · 범종

장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카타로그도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장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취불교전시관

● 성취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취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